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U시〉의 보호관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김인숙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ea Culture Therapy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of the Offenders Monitored by GPS System -Targeted on the Sex Offenders Probationers in <U-city>-

In-Sook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ongmy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의 웰니스의 기본인 자아존중감 향상이라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보호관찰과 차문화치료를 융복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U시 보호관찰소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차문화치료적 환경속에서 대접받고 존중받음으로 긍정적 자아감과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활발히 하는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전, 후에 전체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연구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기존의 인지행동적인 접근보다는 인간존중과 수용적인 인본주의적 접근의 차문화치료프로그램의 효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성범죄자, 보호관찰과 차문화치료 융복합 프로그램, 자아존중감, 인본주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a probation and tea culture therapy convergence program developed for the self-esteem improvement and recidivism prevention of sex offenders supervised by GPS electronic monitoring(wearing electronic anklet). After applying the tea culture therapy program,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program on the self-esteem improvement of sex offenders with electronic anklet. This study employs an integrative approach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It was shown from the qualitative analysis that the participants have considerably more positive attitudes, active participation, serious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ger management, and sympathy after the program. The results from quantitative analysis indicate that the self-esteem of participants are significantly improved.

Key Words : GPS electronic monitoring, Wellness of Sex offender, Probation and tea culture therapy convergence program, self-esteem,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Received 14 April 2015, Revised 20 May 2015

Accepted 20 June 2015

Corresponding Author: In-Sook Kim(Tongmyong University)

Email: yestea@t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성범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이다. 모르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 가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접촉, 아동에 대한 성추행 및 강간 등 매우 다양한 성범죄 유형들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일생에 한 번 발생하고 재발하지 않는 성범죄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습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보인다. 무엇보다 성폭력 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 불리며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에 치유하기 힘든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 더 심각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매스컴의 주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에 발생한 소위 ‘안양 초등학교(혜진, 예슬) 납치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2008년 9월부터 일부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씨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강간 등 성폭력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중 2009년과 2010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위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성폭력, 상해 혹은 살인이라는 잔혹한 범죄였다. 또한 2012년에 발생한 소위 ‘서진환 사건’은 전자발씨를 찬 성폭력 전과자가 가정주부에게 대해 성폭력을 시도하려다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간 대표적인 성폭력범죄였다.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는 2004년 11,105건에서 2013년 26,91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

성범죄는 단순한 성추행에서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 등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라는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범죄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수치감을 주는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가할 뿐 아니라 성범죄에 동반된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상해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는 성장과정에서 가족문제가 있거나 대인관계에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성적학대

나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경향이 많다. 또한 반사회적 성향과 함께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및 자기행동에 대한 자책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뿐 아니라 무엇보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필요시 그들의 행동을 변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사람들은 새로운 행동에 대한 시도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고 적응적인 대처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부적응적인 성적 행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 낮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과잉보상심리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성폭력 가해자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성폭력으로 인한 체포, 처벌과정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특징이며, 성범죄에 대한 판결 과정을 통해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른 폭력범죄보다 더 많이 비난받는 상황을 경험하며, 이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들은 낮은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수치심으로 인해 자신의 성폭력내용이나 피해자의 고통을 부인하기도 한다[2,3,4].

Kersting, K.(2003)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은 자기도취적 성향을 가지는 경향이 많으며, 성공격적인 행동에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나 힘을 나타내려 하고 성범죄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잊고자 한다. 또한 친구와 또래 집단이 부족하며 주요한 타인과의 관계가 매우 빈약하고 사회관계 자체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성과 관련된 일탈적 환상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고, 내적으로 지나치게 몰두하기도 한다.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고와 행동에 몰입하며, 사고와 행동이 성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자들이 지니는 가장 대표적인 인지적 왜곡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부인과 축소이며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학습 및 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심리, 상담 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인간의 적응과 정신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역할을 보고하였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Magill(1996)에 의하면 많은 학자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의 중 최초는 1892년 William James의 것으로, 그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가치, 즉 자신의 성취에 대한 과거의 예측과 비교했을 때 현재 자신의 성취수준”으로 정의하였다[6]. 그 외로 Coopersmith(1967)는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의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열

마나 유능하며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스스로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7], Wells와 Marwell(1976)은 자기애의 형태로 지각되며, 자기 수용의 과정이고, 자신에 대한 유능성이나 능력을 자아존중감이라고 정의 내렸다[8]. 이러한 정의들 중 오늘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보고,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한 인본주의 Rosenberg(1965)의 입장이다[9].

Coopersmith(1967)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의 정서와 행동, 인지과정에 관계하며,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할 경우 심리적 문제나 정서적 장애의 일부 원인이 된다고 보고한다[7].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불안수준이 높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고립되어 있다고 보고한다.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1983)들은 자아존중감이 적응능력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자신에 대한 신뢰와 성취능력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긴장유발, 자신에 대한 태도 및 문제에 대한 해결력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10].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심리·정신적 건강에 끼치는 중요한 특성 때문에, 정옥분(2003)은 개인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서 인간의 정신건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강조하며 개인의 심리적 적응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11].

최근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법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여 위치추적을 하고 있으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12].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에 의한 성폭력이나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에 대한 일반국민의 법 감정이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들의 스트레스나 우울, 자살에 관심을 갖기보다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발찌제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사회적 공감을 더 많이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전자발찌제도의 시행 초기에 비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이 장기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데 따른 피로감 및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우울감이 커지며 죽고 싶

는 의사를 수시로 밝히는 등 자살의 충동이나 실제로 자살을 감행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6]. 따라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들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시급하다.

차문화치료는 일상에서 마음을 챙기고 여유를 가지게 하므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고[13],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심신의 건강과 행복을 가져오는데 매우 유용하다[14]. 또한 차문화치료는 사회적 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전문적인 차문화적 접근으로, 억압과 스트레스로 피폐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어루만져 주고 근원적으로 수양, 수신하게 하여 자신을 바로 알고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이 고루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15]. 더 나아가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고요히 성찰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 따라서 나와 내면의 나 자신, 나와 타인, 자연, 신과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시간을 통하여 관계와 상황에 알맞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다[16,17].

따라서 일반인 및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에게 적용시켜 그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성범죄자 개인의 사회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자아존중감이나 정서적 지지 수준이 낮은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여 사회적 지지 및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차문화치료는 유용한 치료도구가 될 수 있으며, 충동적이고 변화가 많은 현대사회에 부적응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응어리진 감정을 표출하게 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인지행동적인 접근보다는 인간존중과 수용적인 인본주의적 접근으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과의 인간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행동의 변화를 통해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의 자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order	name	nickname(age)	sex	characteristics
1	H00	ginkgo (41)	m	averting people and unable to contact eyes with others
2	N00	pine tree (52)	m	selfish and dark faced
3	K00	running train (58)	m	taciturn and lowing head
4	J00	sun (35)	m	inquisitive and fast talking when questioning
5	L00	sky (29)	m	shaking legs and moving body frequentantly and unrestingly
6	C00	blue sea (50)	m	tired and difficult to sit(liver cirrhosis patient)
7	L00	americano (50)	m	not speaking to the next people and sitting alone absent-mindedly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문제 1. 보호관찰을 받는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의 자아존중감은 프로그램 참여 전후 어떤 양적 변화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보호관찰을 받는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의 자아존중감은 프로그램 참여 전후 어떤 질적 변화양상을 보이는가?

2. 연구설계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U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 중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한 7명으로 한정하였다. 참여자들의 특징은 <Table 1>과 같다.

2.2 연구도구

자아존중감 변인의 측정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대표적으로 쓰이는 척도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RSE: Rosenberg's Self-Esteem Scale)이다. 그동안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수많은 분야에서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져 왔고 다양한 문화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이고 있음이 입증 되어왔는데, 28개의 언어

로 번안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가지고 53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Schmitt 와 Allik(2005)의 연구결과를 몇 가지 문화적 특징에서 오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척도가 다양한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18]. 이런 맥락에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총체적인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매우 적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전병제(1974)가 번역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RSE; Rosenberg, 1965)는 개인의 전반적인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을 평가하는 도구로, 문항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개인부터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개인에 이르기까지 자기가치에 대한 상태를 단일 차원의 연속선상에 나타내어 설명한다[9].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1점)', '보통이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항상 그렇다(4점)'의 Likert식 척도이다. 총점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9였다. 프로그램의 질적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관찰 기록, 소감문, 프로그램 결과물을 분석하였다.

2.3 연구과정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Table 2〉 Research stages and method

research stage and procedure	method	contents
plan stage	data collection	target group choice, data collection and education related to tea-culture therapy, precedent research materials collection
	goal and purpose setting	concrete goal and purpose setting for establishing the effectiveness of tea-culture therapy
	resources confirmation	facilities resources, human resources, finance resources
	pre education	- times : one time - content : acquaint knowledge related to tea-culture therapy, precautions when proceeding program, program pre guidance, pretest education
	pretest	self-esteem scale
practice stage	practicing tea-culture therapy	- the number of participants : 7 - time : weekly 1 session (2 hours per 1 session) - the number of sessions : 10
evaluation stage	closing evaluation meeting	coordinator, assistant coordinator
	posttest	self-esteem scale
	analyse the results interpretation	pre, post test results analysis and interpretation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아래 <Table 2>과 같은 연구단 계와 방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2.3.1 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의 자아존중 감 향상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먼저 문헌연구, 현장전문가, 보호관찰관 및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10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소개와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1회기에 배정하였고, 이후 회기에서는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이해, 차문화와 나의 만남, 차나무 알기와 인생목표 세우기, 성 교육과 차 예절, 다도구 알기와 빈 찻상 요법, 긍정적 감정 채우기, 사건이후 부정적 감정 다루기, 피해자의 고통 인식하기와 차 우려내서 대접하기, 자신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 파악하기와 다례시연, 차부적 만들기과 감사

의 절하기, 편지쓰기 등의 순으로 배정하였다. 매 회기 명상 프로그램 활동으로 본인의 정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10회기에는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느낀 점과 변화된 점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2.3.2 프로그램 실시 장소와 실험 기간 계획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2012년 9월20일부터 11월29일까지 주 1회, U시 보호관찰소의 집단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되었다. 집단 프로그램실은 한옥의 안방느낌이 나는 좌실로 꾸며져 있어서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프로그램 진행은 사회복지와 보호관찰운영위원이며 그리고 차문화치료사로 본 연구자가 보호관찰관과 함께 진행하였는데, 프로그램 시작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10회기 종료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을 하였다.

〈Table 3〉 Pre and post self-esteem scores results comparison

	pretest	posttest	Z
self-esteem scores	2.50	2.70	-3.09**
	2.40	2.70	
	2.20	2.80	
	3.30	3.60	
	2.10	2.50	
	2.50	3.00	
	3.10	3.40	
average(standard error)	2.59(0.45)	2.96(0.40)	

**p<.01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7명의 소수참여자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양적분석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판단 하에, 자료처리 및 분석을 위해 양적 분석 및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참여자 집단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전, 사후 점수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윌콕슨 부호-서열 검정(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윌콕슨 부호-서열 검정은 자료의 정규성 가정이 만족되기 어렵고 표본수가 적을 때, 자료의 분포에 대한 연속성과 독립성에 대한 가정만을 전제로 t 검정을 대신하여 집단의 사전, 사후 비교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모수 통계방법이다.

또한 질적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는 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진행자와 참여자 간의 모든 대화, 참여자들의 신체적인 특징, 몸짓 등 변화과정에 대한 관찰 기록과 소감문 및 프로그램 결과물, 참여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

3. 결과분석 및 논의

3.1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 양적 변화

<Table 3>에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사전 사후의 자아존중감 점수와 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윌콕슨 부호-서열검정의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사전 사후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검사에서 평균 2.59(SD 0.45)였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2.96(SD 0.40)으로 나타나 0.37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3.2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질적 변화

관찰기록과 보호관찰 최종보고서 등을 비교하면서 자아존중감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낮설어 하고 서로 간 눈치만 보고 고개도 들지 않고 말도 작게 하며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였다. 얼굴표정은 굳어 있었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뭔가 숨기려고 하는 태도를 많이 보이고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자신을 소개하는 인디언 별칭 짓기를 하여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개를 할 때도 자신감 없이 목소리도 작게 하였다. 명상 시에는 익숙하지 않아 자세가 바르지 않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음악소리에 귀를 기울여 차분하게 적응을 잘 하였다. 또한 차의 유래와 차의 효능을 알고 선조들이 왜 차를 마시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적은 소감문을 보면 “처음에는 낮설고 교육을 받는다는 생각에 부정적이었는데 나를 위해 차를 우려 마시니까 차분해지고 마음의 수행을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은행),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이라 호기심이 많이 생기고 배우면 마음이 편해지겠지”(태양), “차를 마시니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았다”(소나무), “차를 마시니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 같다”(달리는 기차), “차가 마음의 위로가 된다”(하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프로그램 중기에는 차를 대접하면서 평소 접하지 못한 차문화를 배우게 하였는데 대접을 받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 상대방에게 대접을 하는 기분은 더 좋았다고 반응을 하였다. 빈 찻상요법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감정 분노를 표출하고 긍정적 경험으로 나와의 만남을 가졌으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자 표정이 많이 밝아지면서 옆 사람과도 대화를 하며 분위기가 밝아졌다. 자신의 인생목표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차를 우려서 서로 주고받으니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올라 왔다고 하면서 상대의 입장도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좀 알 것 같다고 하였다. 자신을 낮추게 되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계기가 되었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예절도 익힐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소감문 내용의 일부분을 살펴보면 “모든 것을 잊고 차를 마시면서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이시간이 즐겁다”(태양), “상대방에게 배려심이 자연스럽게 생겼다”(소나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니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달리는 기차), “마음이 편안하고 차

분해 지면서 인생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푸른 바다) 등이다.

프로그램 후기에는 나를 이해하며 존중하고 사랑하는 참나다례를 하였다. 나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서 자기를 존중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차를 우려서 마셨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존재감을 알고 나니 마음이 뿌듯해 진다고 하였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상대 또한 소중한 존재임을 알 수 있도록 장점을 찾고 서로 칭찬도 하면서 자신의 차부적을 만들었다. 자신도 모르는 장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를 통해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자신과 상대를 존중하는 절 명상을 하였는데 절을 받아본 적이 없는 대상자들이 서로에게 절을 하였고 소장님과 교수님께도 절을 받으니 존중받는 기분이 들면서 행복하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하였다. 소감문 내용을 보면 “상대에게 칭찬도 하고 절을 받으니 의미 있고 보람을 느꼈다”(은행), “상대가 내가 모르는 장점을 발견해주고 칭찬도 해 주어서 감사했다”(소나무), “상대를 칭찬하고 나니 내 기분이 너무 행복하다”(달리는 기차), “소장님께 절을 받으니 그동안 부정적 감정이 사라졌고 존중을 받아서 날아갈 것 같다”(태양), “나도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장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을 존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하늘) “나도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다”(아메리카노) 등이다.

전자발찌를 하고 있는 성폭력 대상자들은 의심이 많이 받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여서 자아존중감이 낮고 신뢰감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사회에서도 낙인이 되어 소외감으로 인해 자신감도 사라지고 시선도 따가워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자기불안으로 프로그램 초기에는 낮설고 어색해하면서 긴장을 하고 무표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도 작게 하여 자신감이 없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회기가 진행될수록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로그램 중기에는 따뜻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차를 대접하고 대접 받으면서 우리 전통의 고급문화를 접하게 되었으며,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대방 입장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고, 프로그램 후기에는 자신을 위한 차를 우려서 마시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고 참나다례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자신도 모르

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상대를 칭찬하고 칭찬 받으면서 행복해 하였고 절을 받으므로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하였다.

프로그램 분위기의 물리적 공간적 형태의 변화를 보면, 프로그램 초기에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진행자를 중심으로 조금 멀리 떨어진 반원의 형태를 유지하였다가, 프로그램 중기에는 서로의 친근감을 느끼면서 원형형태로, 후반기에 접어들자 진행자를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아주 밀착된 원형형태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와같은 프로그램의 분위기 변화로 대상자들은 진행자와 프로그램 중후반으로 갈수록 심리적, 물리적으로 아주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분위기의 온화성 등이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들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이 전자발찌를 하고 있는 성폭력 사범들에게 각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존경심, 수용으로 자기 존중의 체험을 하였으며, 자기존중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자기존중, 자기이해, 자기사랑이라는 자연스럽게 허용적인 수용적인 분위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4. 결론

본 연구는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이라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효과적인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U시 보호관찰소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7명으로 한정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 자아존중감 척도 점수를 평가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U시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 실시 후에 전

체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연구 대상 7명 전체의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관찰기록에 의하면 차문화치료를 통해 U시 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 간의 자기존중하며 나아가 상대를 존중하므로 상호작용이 높아졌으며, 차문화를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예를 갖추는 대인관계로 생활의 적극성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차문화치료가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인 것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교 내지 통제집단이 결여된 채 단일집단 설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 상당한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추후 차문화치료에 관한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결과비교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효과성이 좀 더 정밀하고 타당하게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에게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향후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담당 인력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인적지원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비공식기관에서 프로그램지지를 공동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U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은 본 프로그램 체험시간 이외시간과 공간에서, 즉 보호관찰소 밖에서 가족, 친구, 다른 외부 사람들과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대인관계의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또는 친지들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을 위해 차문화치료사들을 보다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Institute of Justice , Crime Report, 2015.
 [2] M. C. Jeon,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ex offenders adult Koreans and sexual offense recidivism path model, Sungsin

women's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3.
 [3] W. Driemeyer, A. Spehr, D. Yoon, H. Richter-Appelt, P. Briken, Comparing sexuality, aggressiveness, and antisocial behavior of alleged juvenile sexual and violent offend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Vol. 58, pp. 711-718, 2013.
 [4] O. Giotakes, N. Vaidakis, M. Markianos, G. Christodoulou,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sexual offenders, Psychi-atriki, Vol. 14, No. 3, pp. 181-190, 2003.
 [5] S. J. Lee, Sex offender typ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and recidivism prevention measure exploration. Korea criminal policy institute sex offense seminar materials, pp. 11-64, 2008.
 [6] F. N. Magill,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sychology, London: Fitzroy Dearborn, 1996.
 [7]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In T. A. Wills(Ed.), Basic process in helping relationships, (pp.4-5, 96-117) New York: Academic Press, 1967.
 [8] L. E. Wells, G. Marwell, Self-esteem: It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Beverly Hills, CA: Sage, 1976.
 [9]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10] M. T. Greenberg, J. M. Siegel, C. J. Leitch,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to parents and peer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2, pp. 373-386, 1983.
 [11] O. B. Jeong,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Seoul: Hakjisa, 2003.
 [12] H. S. Kang,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Recidivism among Sex Offenders Supervised by GP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Soongsil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2.
 [13] I. S. Kim, S. M. Cho, The Stress Alleviation Effect of Tea-Culture Therapy for Probation Officers-Targeted on the Probation Officers in U City. Korea Tea Journal, Vol. 19, No. 1, pp. 1-9, 2013.
 [14] I. S. Kim, The Effect of Tea Culture Therapy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Self-Efficacy of

- Juvenile Probationers. Korea digital policy journal, Vol. 12, No. 5, pp. 479-490, 2014.
- [15] I. S. Kim, Female students cognitive emotional behavior change through tea-culture therapy program, Busan women's college haengkyong treatises, Vol. 25, pp. 229-233, 2004.
- [16] I. S. Kim, The change of dementia elders cognitive emotional function through tea-culture therapy. Korea tea journal, Vol. 13, No. 3, pp. 25-41, 2007.
- [17] I. S. Kim, Handicapped student anxiety reduction effect through tea-culture therapy program, Busan women's college haengkyong treatises, Vol. 32, pp. 307-327, 2001.
- [18] D. P. Schmitt, J. Allik, J.(2005). Simultaneous administration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in 53 nations: Exploring the universal and culture-specific features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9, pp. 623-642, 2005.

김 인 숙(Kim, In Sook)



- 1998년 2월 : 부산대학교 가정학과 (이학박사)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3년 3월 ~ 2015년 2월 :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재활과 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보호관찰, 차문화치료
- E-Mail : yestea@tu.ac.kr